

2018 Startup Investment Report

2018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

2018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 개요

2018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는 벤처스퀘어가 2018년 한 해 동안 투자사와 피투자사가 공식적으로 투자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발표한 데이터 스퀘어베이스(www.venturesquare.net/squarebase)를 기반으로 삼은 것이다. 2018년 스타트업 투자 규모별, 업종별, 성별, 투자사별 등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했으며 리포트에 언급한 스타트업은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중견 기업에 한정했다. 대기업군으로 분류되는 기업이나 대기업 자회사의 경우 제외했다는 점을 알려둔다.

스타트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따르는 벤처캐피탈협회 분류 방식을 1차 벤치마킹했으며 해외 분류 기준을 참고해 벤처스퀘어가 자체 설정한 기준에 따라 11가지로 분류했다. 여성 기업의 경우 창업자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여성일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블록체인은 투자 금액에는 법정화폐 투자와 코인 투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 투자 사례는 타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어도 벤처스퀘어 데이터 내에 누락됐을 수 있다.

2018 EXECUTIVE SUMMARY

2018년에 이뤄진 투자 건수는 모두 **418** 건이며 투자 유치 금액은 **4조 9,150억 6,000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 건수 418건 가운데 투자 금액을 공개한 294건을 분석한 결과 **10억~30억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이어 50억~100억 미만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과 투자 단계를 모두 공개한 96건을 기반으로 투자 단계를 나눈 결과 **시리즈A 45%, 시리즈B 28%, 시드 10%, 시리즈C 7%** 순을 보였다. 또 투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투자 단계를 공개한 투자 건수 대부분은 시드와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2018년 가장 많은 투자(120건)가 이뤄진 업종은 **소비자제품/서비스**였다. 세부 분야로는 푸드와 여행, 뷰티, 패션, 교육, 인테리어, 반려동물, 차량서비스 등이며 O2O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다수 속해있는 업종이다.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분야는 **유통/서비스**로 총 2조 6,932억의 투자가 이뤄졌다. 쿠팡이 2조 4,000억 원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 금액의 89%를 차지했지만 쿠팡을 제외하고도 유통/서비스 분야는 마켓컬리, 코리아센터, 글로벌네트웍스 등 이커머스와 메쉬코리아, 바로그 등이 속한 물류/배송 서비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2018년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로 떠올랐다.

2017년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18년에는 **블록체인** 분야에 전문 투자하는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이 등장하며 상반기 블록체인 기업 투자가 다수 이뤄졌다. 하반기 들어 시장 침체로 투자 수는 줄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이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기술에 대한 관심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성장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시리즈B 규모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핀테크 기업이 늘었고 글로벌 투자사도 국내 핀테크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 밸런스히어로, 에버스핀, 레이니스트,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등이 올해 투자 유치에 성공한 대표적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1,000억 원 이상 **메가 라운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쿠팡(2조2,400억), 우아한형제들(3,600억), 카카오게임즈(1,400억), 비바리퍼블리카(1,340억), 베스핀글로벌(1,170억)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기업이 조달한 투자 금액은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의 64% 이상을 차지한다. 2018년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기업은 두 차례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2조 4,000억 원을 유치한 쿠팡이다.

2018년 **IPO**에 성공한 주요 스타트업으로는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을 서비스하는 케어랩스, 테슬라 제도 1호 상장기업 카페24, AI 재활 솔루션 기업 네오팩트 등이 있다.

올해 유니콘 기업을 공식화한 스타트업은 **우아한형제들** (3,600억 원)과 **비바리퍼블리카** (1,340억 원) 2곳으로 각각 3조, 1조 이상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베스핀글로벌은 차세대 유니콘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8년 **인수합병**은 모두 35건이 진행됐다. 직방, 쏘카, 스타일쉐어, 버즈빌, 마켓디자이너스, 야놀자, 에버스핀 등 성장기 스타트업이 유사 업종 초기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사업 확대와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8년 가장 주목 받은 인수합병 사례는 로레알의 스타일난다 인수, 카카오모빌리티의 렉시 인수, 스타일쉐어의 29CM 인수 건이었다.

2018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여성 기업은 33곳**으로 이들 기업이 유치한 총 투자금액은 1,418억 5,000만 원이다. 2018년에는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었지만 여성 기업이 유치한 금액은 전체 투자 금액 중 2% 남짓에 그쳤다. 주요 여성 기업으로는 마켓컬리, 트리플, 라엘, 디스이즈엔지니어링, 8퍼센트 등이며 분야는 이커머스, 에듀테크를 비롯한 교육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한 국내외 투자사는** 엔젤 투자자를 제외하고 모두 **342곳**이며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한 출자자는 벤처캐피털(256건)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캐피털 중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소프트뱅크벤처스, SBI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이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했다.

국내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벤처캐피털은 **알토스벤처스**로 2018년 한 해 동안 비바리퍼블리카, 글로벌네트워크, 아이디어스, 링크샵스, 크몽, 비프로일레븐, 렌딧, 스위트스팟, 메이크스타, 엘리스 등에 신규 혹은 후속 투자 34건을 진행했다.

주승호 벤처스퀘어 기자 choos3@venturesquare.net

목차 / CONTENTS

• 2018 연간 투자 트렌드	06
• 월별 주요 투자 이슈 타임라인	07
• 투자 규모별 트렌드 분석	10
• 투자 분야별 트렌드 분석	17
• 성별 투자 트렌드 · 여성 기업 분석	20
• 2018년 인수합병 트렌드 분석	22
• 메가 라운드 투자 및 유니콘 기업	24
• 2018년 총 투자 금액 TOP 20	25
• 2018 스타트업 투자사 트렌드	27
•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10대 뉴스	31
• 2018 투자 트렌드 · 2019 투자 전망	36

2018 연간 투자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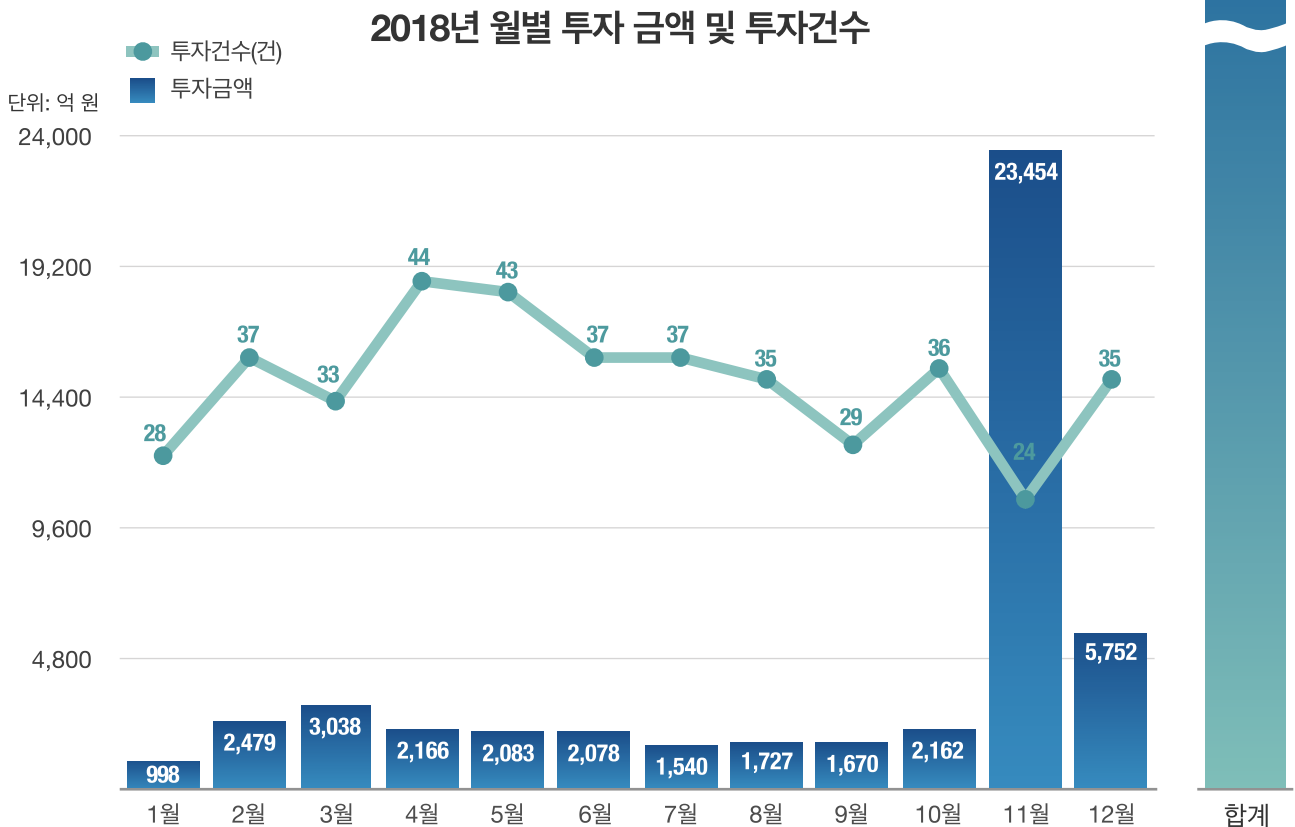
2018년 1~12월까지 총 투자건수 418건, 금액 공개 기준 294건 투자가 진행됐으며 총 투자유치 금액은 4조 9,150억 6,000만 원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몰린 달은 11월이 2조 2,400억 원 투자를 유치한 11월이다. 11월의 대규모 투자 유치 금액을 뺀 후 평균치를 내보면 매달 약 2,095억 원씩 투자가 이뤄졌다.

2018 연간 총 투자건수

 **41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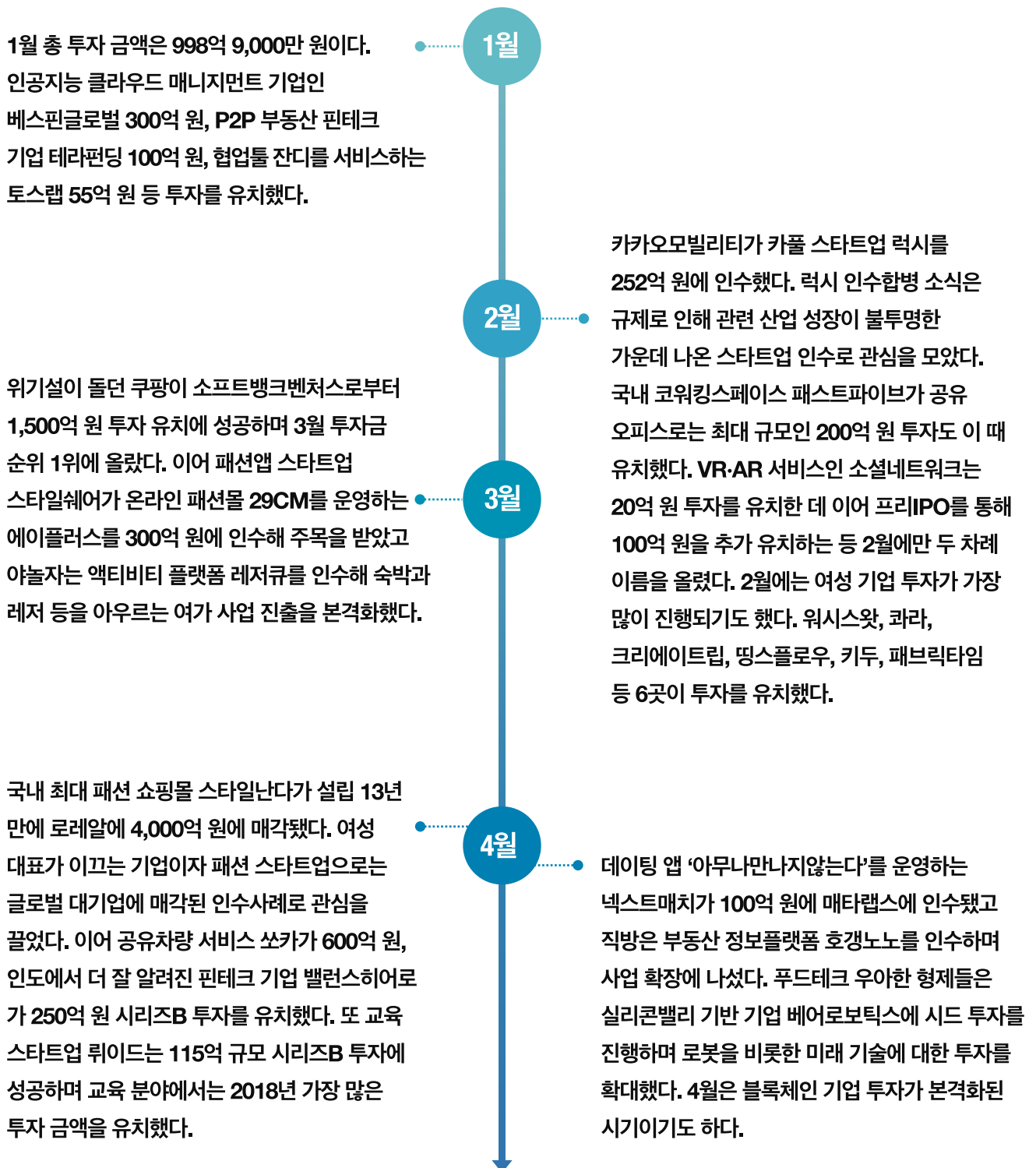
총 투자금액

 **4조 9,150억 6,000**만 원



※ 벤처스퀘어 2018년 자료 기준

월별 주요 투자 이슈 타임라인



야놀자가 4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여가·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을 밝혔다. 여성창업자가 설립한 여행 정보 플랫폼 트리플과 여성용품 이커머스 라엘이 각각 120억 원과 23억 원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5월은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시기로 체인파트너스가 118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면서 블록체인 분야 5월 투자 순위 1위를 차지했다.

5월

간편 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44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핀테크 분야 기업으로 1~6월말 기준 최대 투자금을 유치했다. 호텔 예약 플랫폼 데일리호텔이 세쿼이아캐피탈, 글로벌브레인 등 유명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시리즈C 규모 투자를 유치했지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업 투자도 계속 이어지며 데일리인텔리전스, 센티넬프로토콜 등이 투자에 성공했다.

6월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가 275억 원 투자를 유치했으며 라디오 플랫폼 마이쿤과 헬스케어 기업 루닛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을 투자 받으며 7월 투자 순위권 스타트업에 올랐다. 공유차량 서비스 쏘카가 데이트채팅앱 VCNC를 인수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쏘카에 따르면 VCNC의 빅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을 높이 평가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이 급여 공개 플랫폼 크레디잡을 인수했다.

7월

티몬 창업자 신현성 대표가 설립한 테라가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 투자 금액인 360억 원 시드투자를 유치했다. 이어 유전자 스타트업 제노플랜이 148억 원 시리즈B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영어 교육 플랫폼 튜터링이 마켓디자이너스와 합병하고 대교가 수학 교육 플랫폼 노리를 인수했다.

8월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마켓컬리가 설립 4년 만에 670억 원 시리즈C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았다. 공유오피스 스파크플러스가 200억 원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아놀자는 더블유디자인호텔을, NHN엔터가 여행박사를, 지냄이 볼로를 인수하면서 숙박과 여행 산업에서의 인수 합병이 다수 이뤄졌다.

9월

10월

베스핀글로벌이 1월 300억 원 투자에 이어 10월에도 87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차기 유니콘 후보로 거론됐다. 문피아(250억), 밀리의서재(65억)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도 투자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BBB가 165억 원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018년 헬스케어 분야 투자 금액 순위 1위를 차지했다.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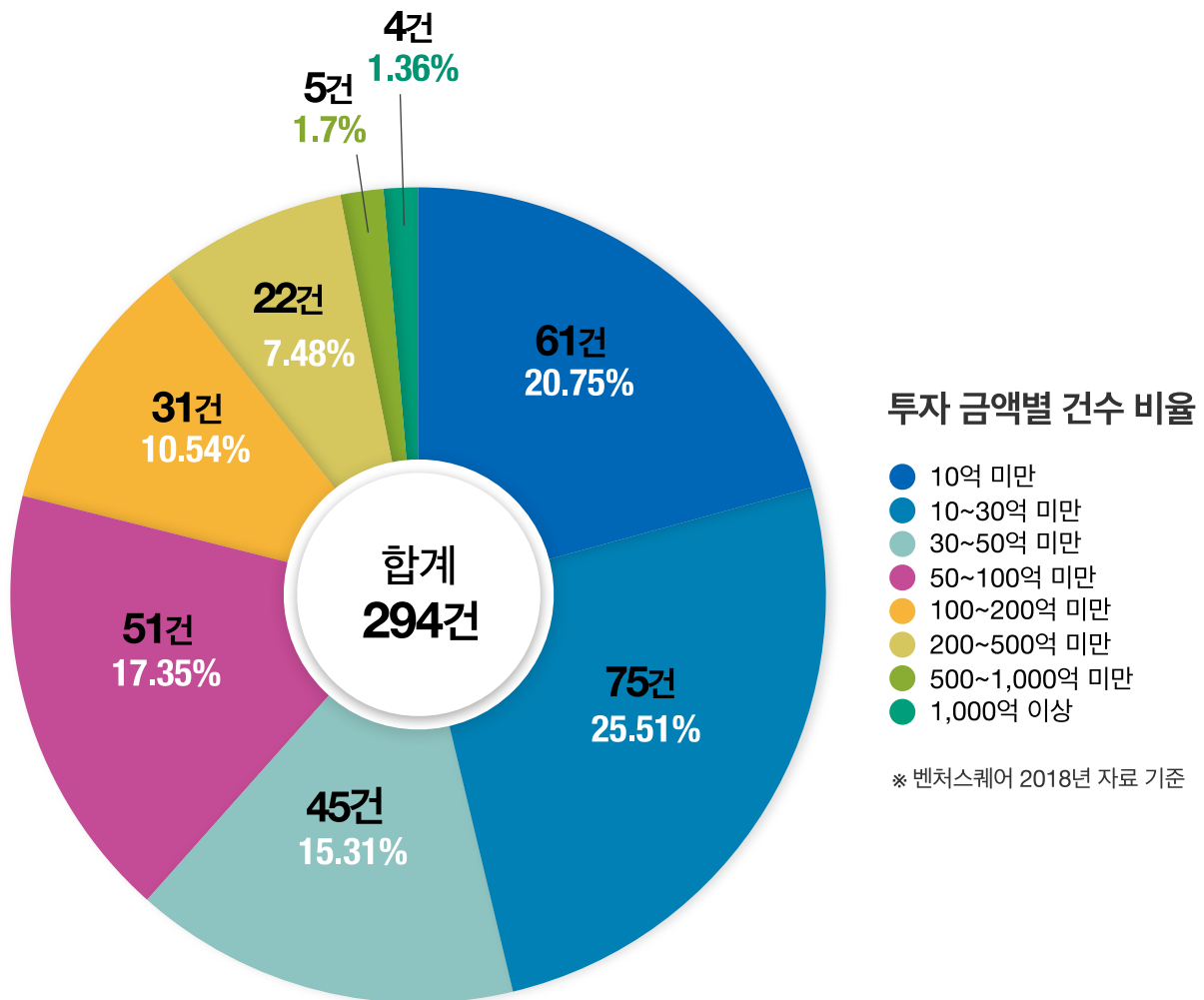
쿠팡이 3월 1,500억 원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해 2조 2,500억 원 추가 자금을 확보하며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사상 최대 규모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한편 국내 기업이지만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해외에서 더 알려진 여성용품 브랜드 라엘이 5월 23억 투자에 이어 200억 원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12월

우아한형제들이 3,60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유니콘 기업을 공식화 했다. 기업 가치는 3조원으로 평가받았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6월에 이어 900억 원 추가 투자에 성공했다. 클라이너퍼킨스, 리빗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등 해외 벤처캐피탈이 대거 투자에 참여하면서 1조원 가치를 공식화 하고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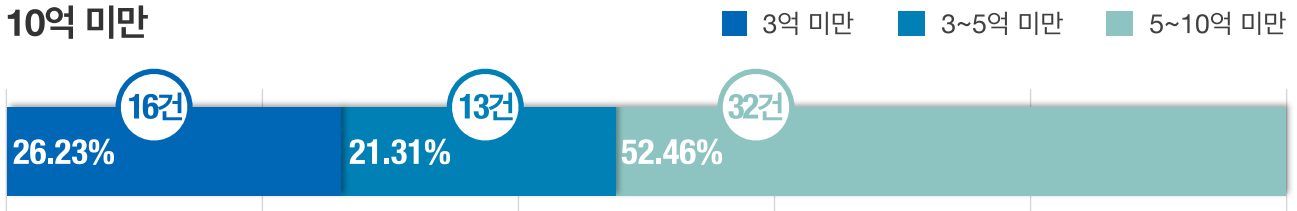
투자 규모별 트렌드 분석

투자 금액을 공개한 294건을 분석해본 결과 10억~30억 미만 구간(25.51%)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이어 10억 미만(20.75%), 50억~100억 미만 구간(17.35%) 순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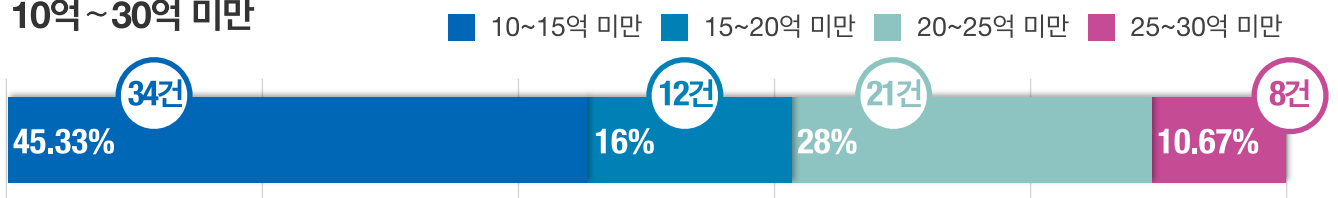


투자 구간별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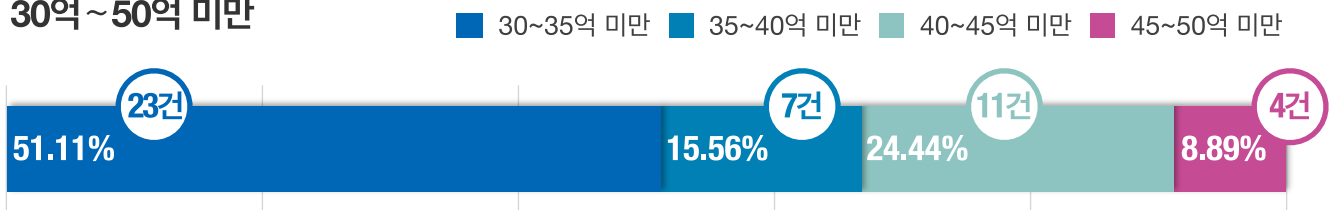
10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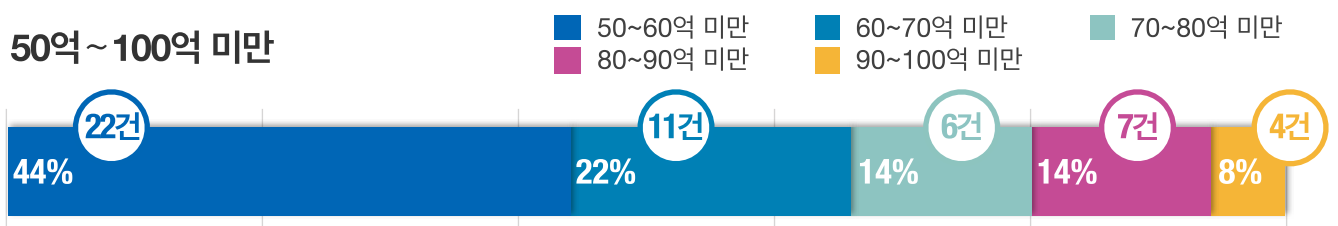
10억 ~ 30억 미만



30억 ~ 50억 미만



50억 ~ 100억 미만



100억 ~ 200억 미만

■ 100~150억 미만 ■ 150~200억 미만



200억 ~ 500억 미만

■ 200~300억 미만 ■ 300~400억 미만 ■ 400~500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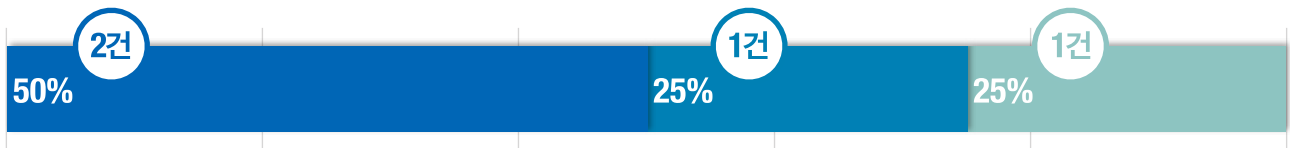
500억 ~ 1,000억 미만

■ 500~600억 미만 ■ 600~800억 미만 ■ 800~1,000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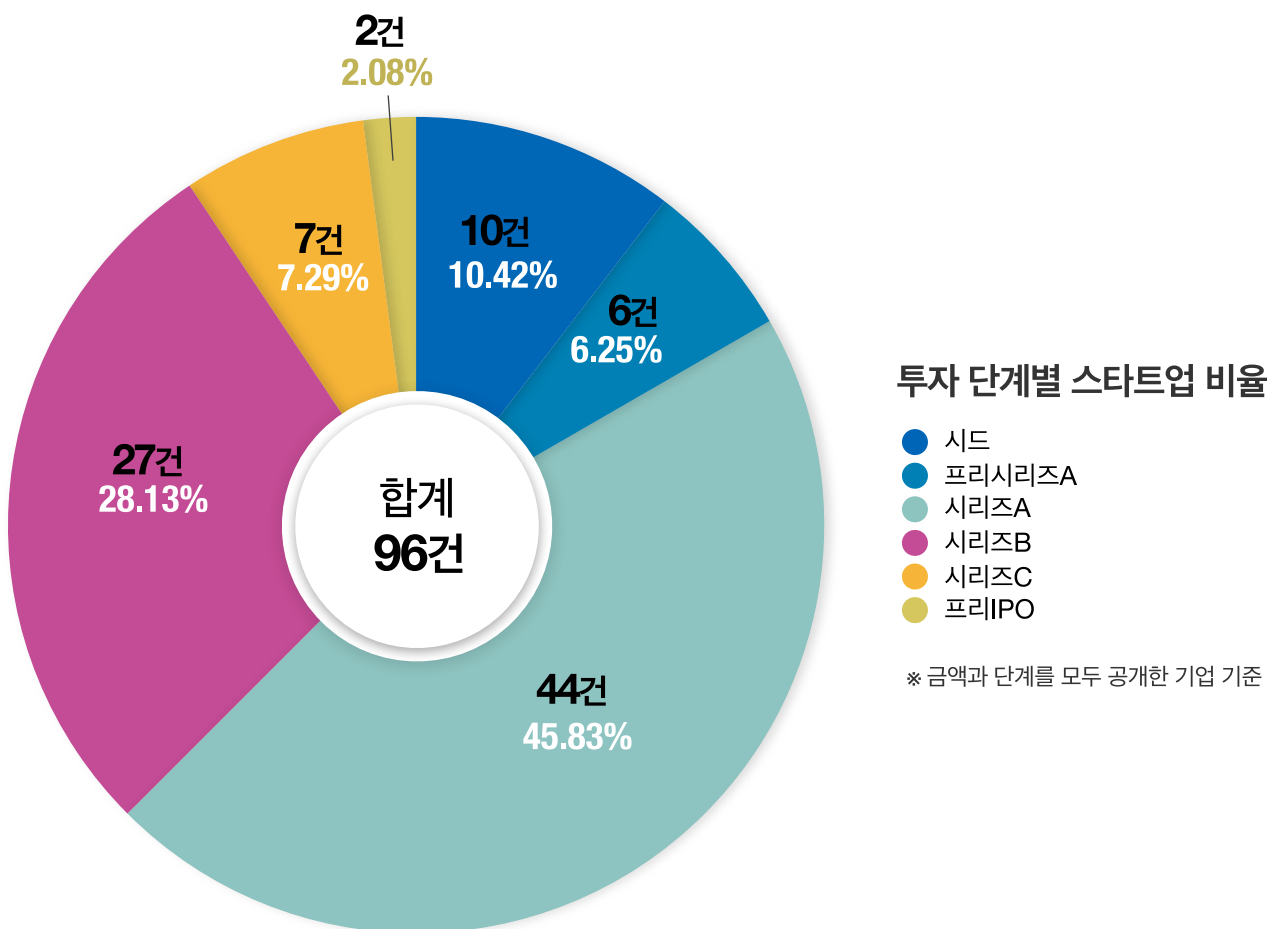
1,000억 이상

■ 1,000~2,000억 미만 ■ 2,000억~1조 미만 ■ 1~3조 미만



투자 단계별 분류 · 분석 (투자 금액 공개)

총 294건 투자 중 투자 구간별 투자 금액과 투자 단계를 모두 공개한 96건 투자에 한해 투자 단계(시드, 프리시리즈A, 시리즈A, 시리즈B, 시리즈C, 프리IPO)별로 분류를 해봤다. 참고로 1,000억 이상 기업 5곳은 단계별 구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투자 단계별 투자금액 비교에선 제외했다.



투자 단계별 투자금액 비교

10억 미만

■ 3억 미만 ■ 3~5억 미만



10억 ~ 30억 미만

■ 시드 ■ 프리시리즈A ■ 시리즈A ■ 시리즈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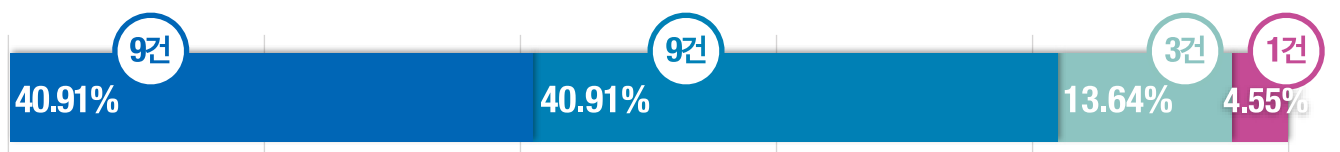
30억 ~ 50억 미만

■ 시리즈A ■ 시리즈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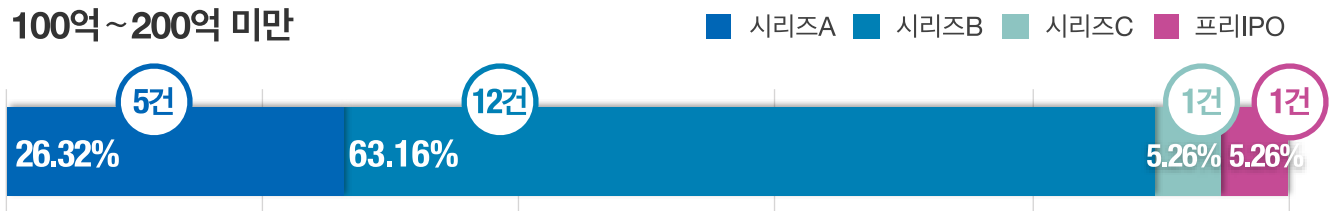


50억 ~ 100억 미만

■ 시리즈A ■ 시리즈B ■ 시리즈C ■ 프리IPO



100억 ~ 200억 미만



200억 ~ 500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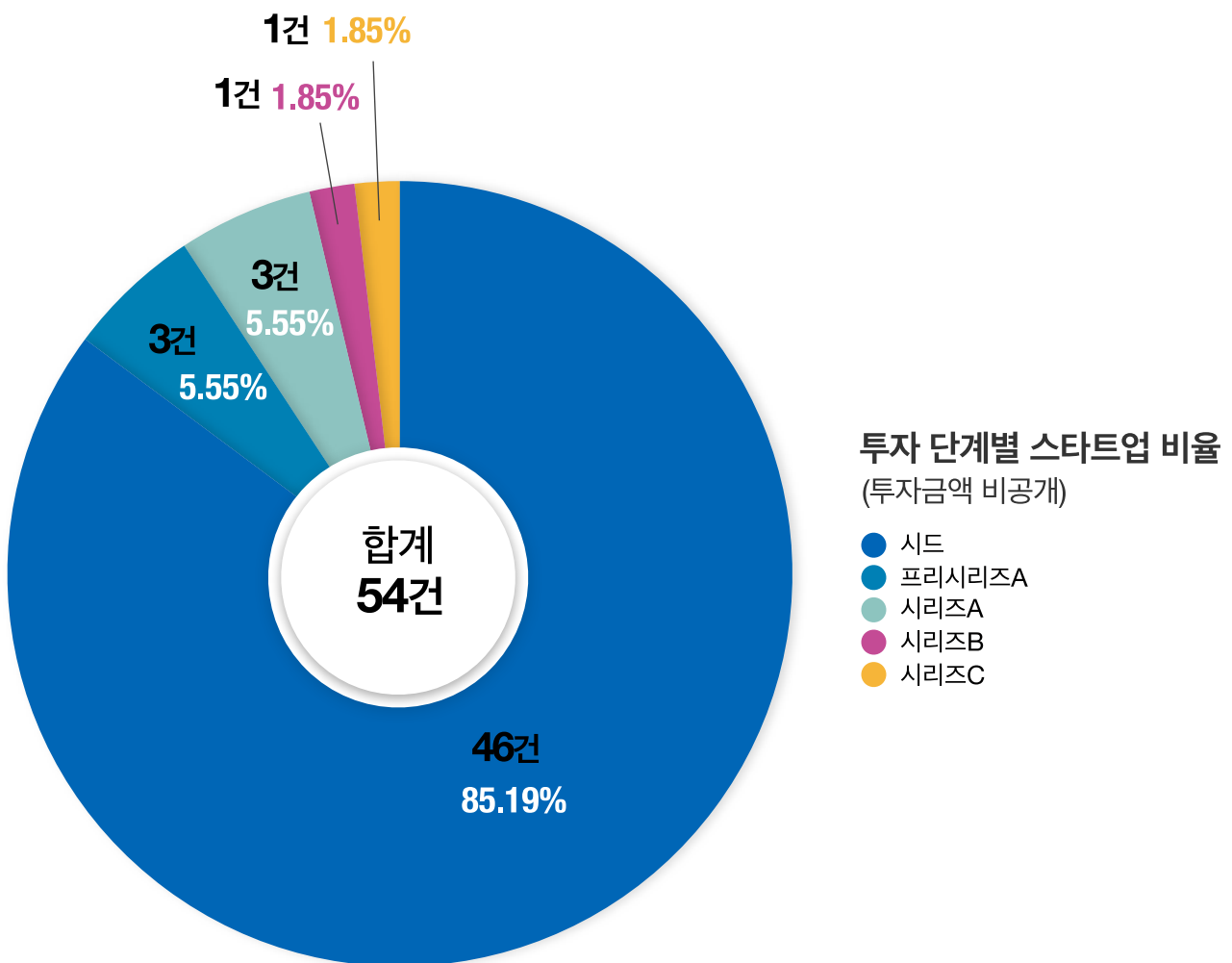


500억 ~ 1,000억 미만



투자 단계별 분류·분석 (투자금액 비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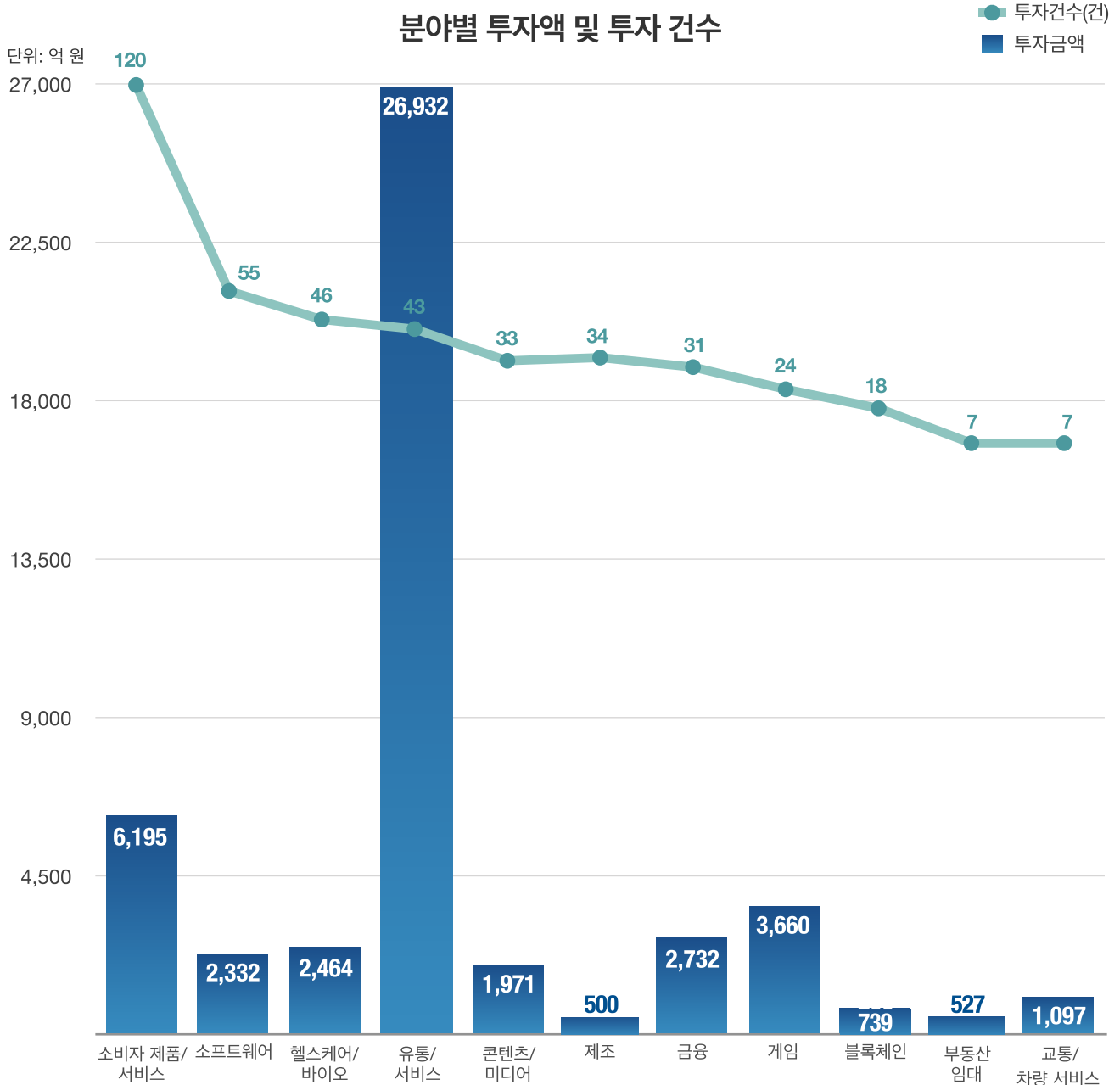
투자 금액은 비공개지만 투자 단계를 공개한 투자 54건 가운데 85% 이상은 시드 투자에 해당된다. 엔젤이나 시드 투자의 경우 투자 금액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사는 초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분야별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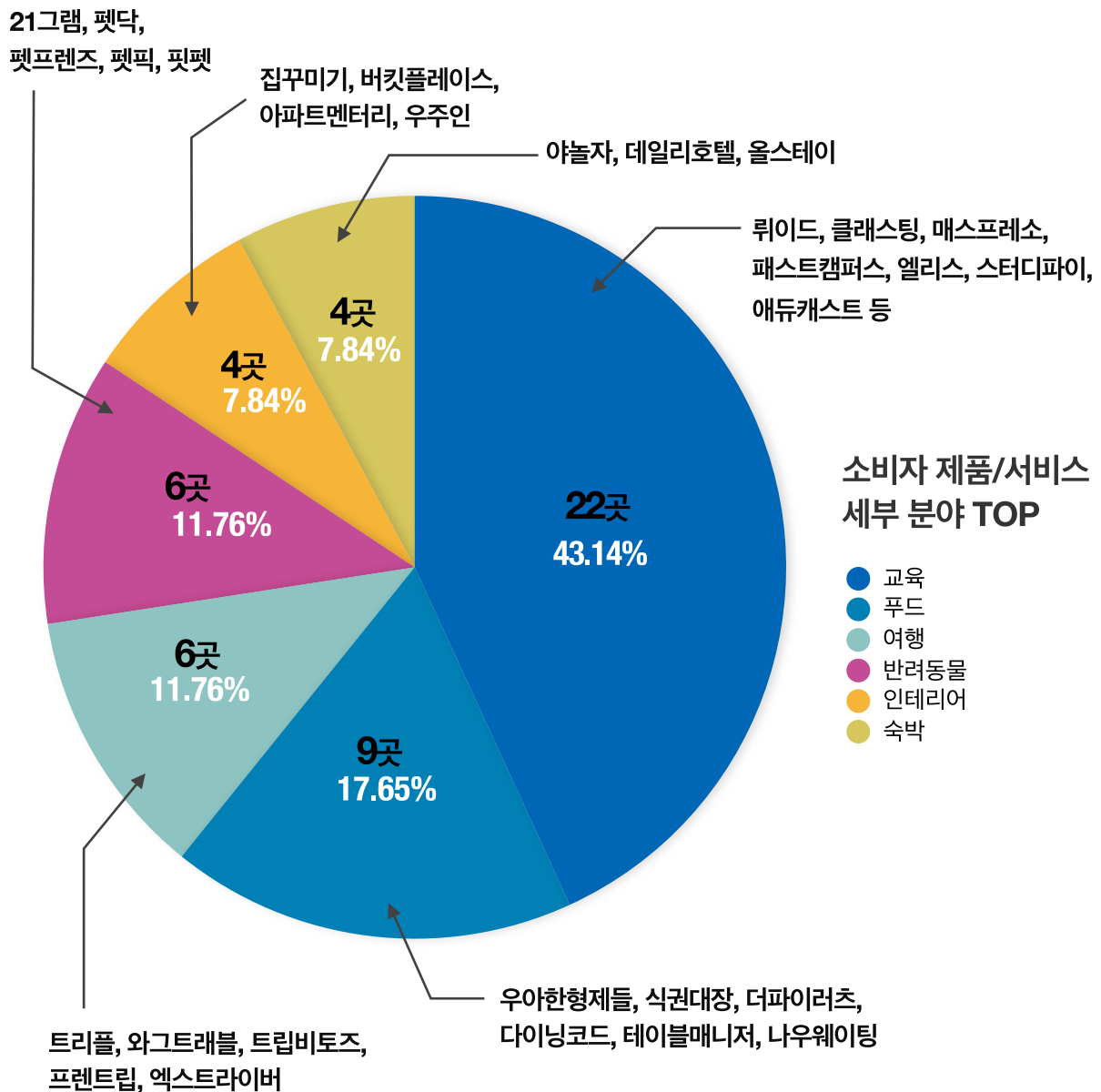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해외 스타트업 분류 방식을 모두 참고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모두 11개 (소비자 제품/서비스, 소프트웨어, 헬스케어/바이오, 유통/서비스, 콘텐츠/미디어, 제조, 금융, 게임, 블록체인, 부동산임대, 교통/차량 서비스)로 분류했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업종은 소비자 제품/서비스(120건).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분야는 유통/서비스로 2조 6,932억 원을 기록해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 순위가 비례하지 않았다. 유통/서비스는 쿠팡이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을 비롯해 물류와 배송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2018년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분야로 꼽혔다.



5대 주요 분야별 특징

① **소비자 제품/서비스** : 이 분야에선 모두 120건 투자가 이뤄졌다. 소비자 제품/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푸드와 여행, 반려동물, 패션, 뷰티, 숙박, 교육, 배달 등 O2O는 물론 여러 플랫폼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주요 기업으로는 우아한형제들(3600억), 야놀자(400억), 트리플(120억), 루이드(115억), 크몽(110억), 미소(90억), 마켓디자인스(80억), 와그트래블(80억), 클래스팅(66억), 식권대장(65억), 집꾸미기(60억)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세부 분야별로는 교육(에듀테크), 푸드(푸드테크), 여행, 반려동물, 인테리어, 숙박, 홈클리닝, 채용, 패션, 뷰티, 차량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 건이 이뤄진 세부 분야는 교육(에듀테크)으로 나타났다.



② **유통/서비스** : 이 분야는 투자 건수로 따지면 43건으로 소비자 제품/서비스(120건)보다 적지만 투자 금액은 2조 6,902억 원으로 총 투자 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54%)을 차지했다. 이는 쿠팡이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 기인하지만 이커머스 및 물류, 운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쿠팡을 제외하고도 마켓컬리(670억)와 코리아센터(260억), 비투링크(170억), 아이디어스(160억), 링크샵스(115억), 글로벌네트웍스(150억) 등 이커머스 분야 기업인 메쉬코리아(275억), 바로그(200억), 원더스(40억) 등 물류/운송 분야 주요 기업이 시리즈A 이상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통/서비스 분야 성장을 견인했다.

③ **금융** : 국내 핀테크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해외 벤처캐피탈도 큰 관심을 갖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2018년 국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모두 1,340억 원을 유치하며 유니콘을 공식화한 첫 번째 핀테크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보안 스타트업 에버스핀 역시 일본 SBI홀딩스, 홍콩 사모펀드 블랙파인 등으로부터 215억 원을 유치하며 보안 핀테크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투자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피플펀드(123억), 어니스트펀드(122억), 테라펀딩(100억), 렌딧(70억), 8퍼센트(60억), 메이펀딩(40억), 한국어음중개(40억) 등 P2P 금융 분야 투자 유치도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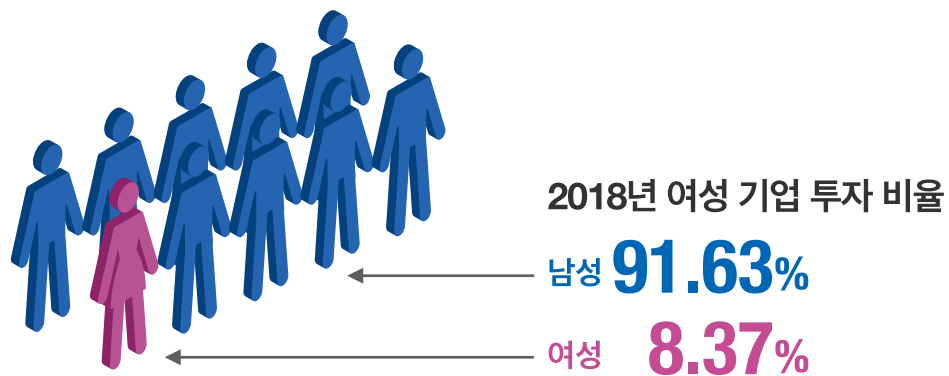
④ **블록체인** : 2017년 말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2018년 상반기부터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다수 이뤄졌다. 이 중에는 기존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업도 많았다. 최대 투자 금액을 유치한 기업은 테라로 국내외 주요 크립토펜드와 거래소로부터 360억 원을 유치했다. 하반기 들어 시장이 침체되면서 투자 수는 줄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반 기업이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기술에 대한 관심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⑤ **부동산/임대** : 공유 오피스를 선호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패스트파이브와 스파크플러스 등 국내 코워킹스페이스 역시 2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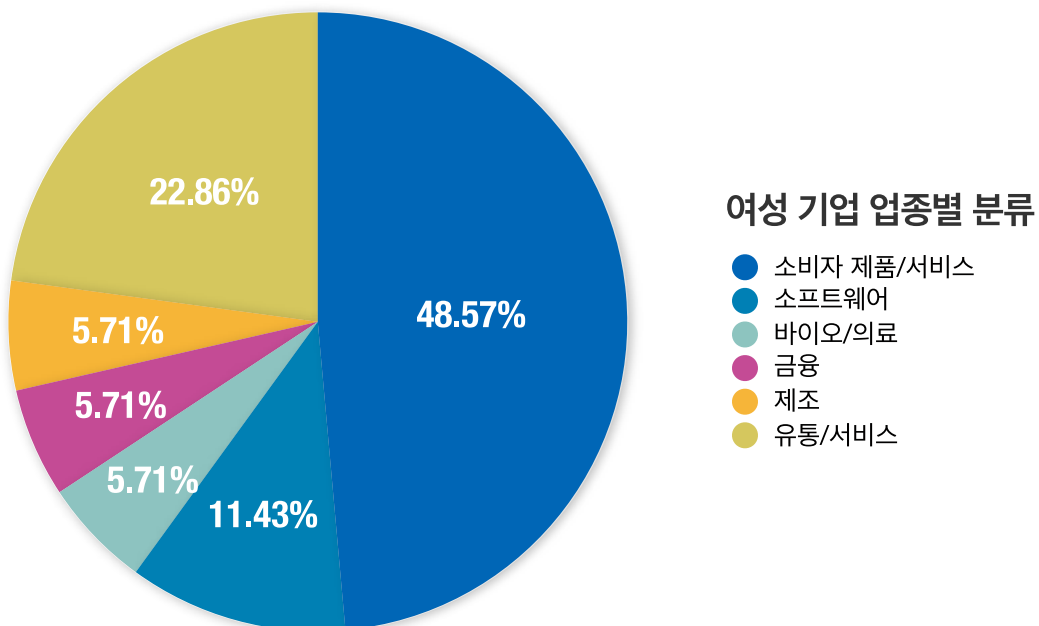
성별 투자 트렌드·여성기업 분석

2018년 한 해 동안 투자 유치에 성공한 여성 기업 수는 모두 33개다. 이들 기업이 유치한 총 투자 금액은 1,418억 5,000만 원. 여성 기업 투자 유치 건수는 모두 35건으로 2018년 전체 투자 중 8% 가량을 차지했지만 투자 금액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 기업 중 48% 이상은 소비자 제품/서비스 분야, 22%가 유통/서비스 분야이며 이 중에서도 이커머스와 아동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창업자 중 적어도 여성 창업자 1명이 포함된 경우 여성 기업으로 분류했다.



2018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신선 식품 배송 서비스인 마켓컬리다.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67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마켓컬리는 설립 4년 만에 시리즈C 규모 투자를 유치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2018년 전체 투자 유치 금액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하며 여성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투자액을 유치한 기업에 올랐다. 또 두 차례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생활용품 이커머스인 라엘,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 아드레엘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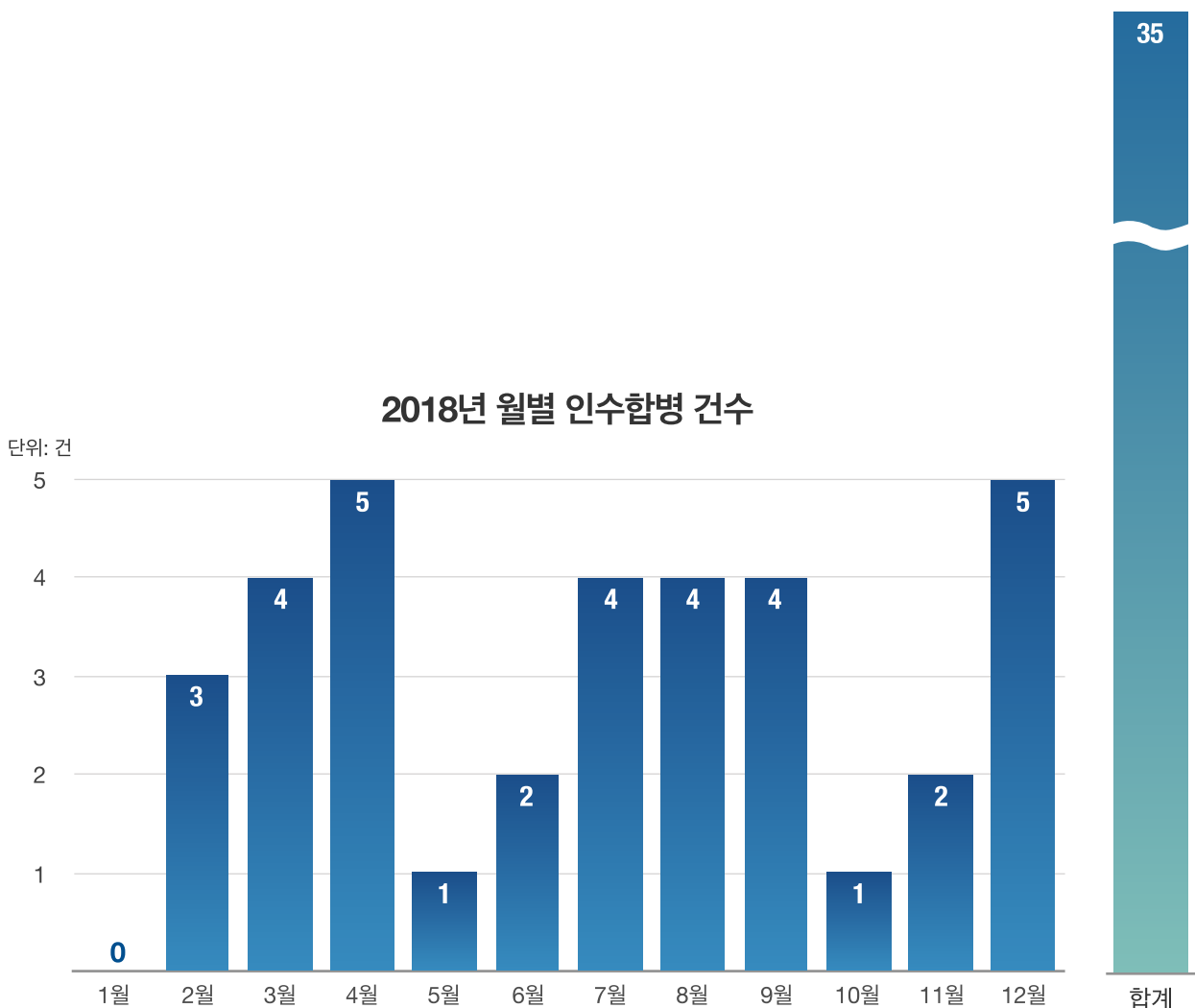
기업	분야	투자금액 (단위: 억 원)
더파머스 (마켓컬리)	신선 식품 배송/이커머스	670
라엘	여성용품 이커머스	223
트리플	여행 플랫폼	120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드론 스타트업	70
8퍼센트	P2P 핀테크	60
윙블링	뷰티 이커머스	50
아파트멘터리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30
위시스왓	세탁 플랫폼	30
레이틀리코리아	패션 이커머스	25
생활연구소	홈 클리닝	25
데이트팝	데이트 정보 플랫폼	23
아이엠랩	헬스케어 솔루션	15
짜깁악어	아이돌봄 매칭 플랫폼	12
과라	핀테크	11
크리에이트립	여행 플랫폼	10
자란다	아이돌봄 매칭 플랫폼	9
오늘회	신선회 이커머스	8
땅스플로우	챗봇	6
애드히어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5
테코플러스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업	5
해피문데이	여성용품 배송 서비스	5
디폴리	인공지능 음성 분석 기술	3
펫픽	반려동물	2
런치팩	빌더 소프트웨어	1
더클로젯컴패니	패션 플랫폼	
두브레인	유아인지두뇌연구소	
맘시터	아이돌봄 중개 플랫폼	
아드리엘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	
아미쿠스렉스	법률 중개 플랫폼	
젤리랩	헬스케어	
키두	유아전문 UX디자인회사	
투미유	AI 스피킹 서비스	
패브릭타임	원단 이커머스	

2018년 인수합병 트렌드 분석

2018년 인수합병은 모두 35건이 진행됐으며 총금액은 5,649억 원이다. 인수금액을 공개한 곳은 스타일난다, 써머스플랫폼, 29CM, 럭시, 넥스트매치며 나머지는 비공개다. 2018년에는 직방, 쏘카, 스타일쉐어, 버즈빌, 마켓디자인스, 야놀자, 에버스핀 등 성장기 스타트업이 동일 업종 초기 스타트업을 인수해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에 나섰다. 네이버 계열사인 NHN엔터테인먼트는 여행박사를 인수했고 교육 기업인 대교 역시 수학 교육 플랫폼 노리를 인수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는 각각 럭시, 모빌, 네오바자르를 인수하면서 사업 확대에 나섰다.

2018년 가장 많은 기업을 인수한 스타트업은 야놀자다. 레저큐와 한국물자조달, 더블유디자인호텔 등 3곳을 인수했다. 야놀자는 인수를 통해 사업 확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여성 기업 인수합병 건은 로레알에 인수된 패션 쇼핑몰 스타일난다와 영어 교육 플랫폼 튜터링 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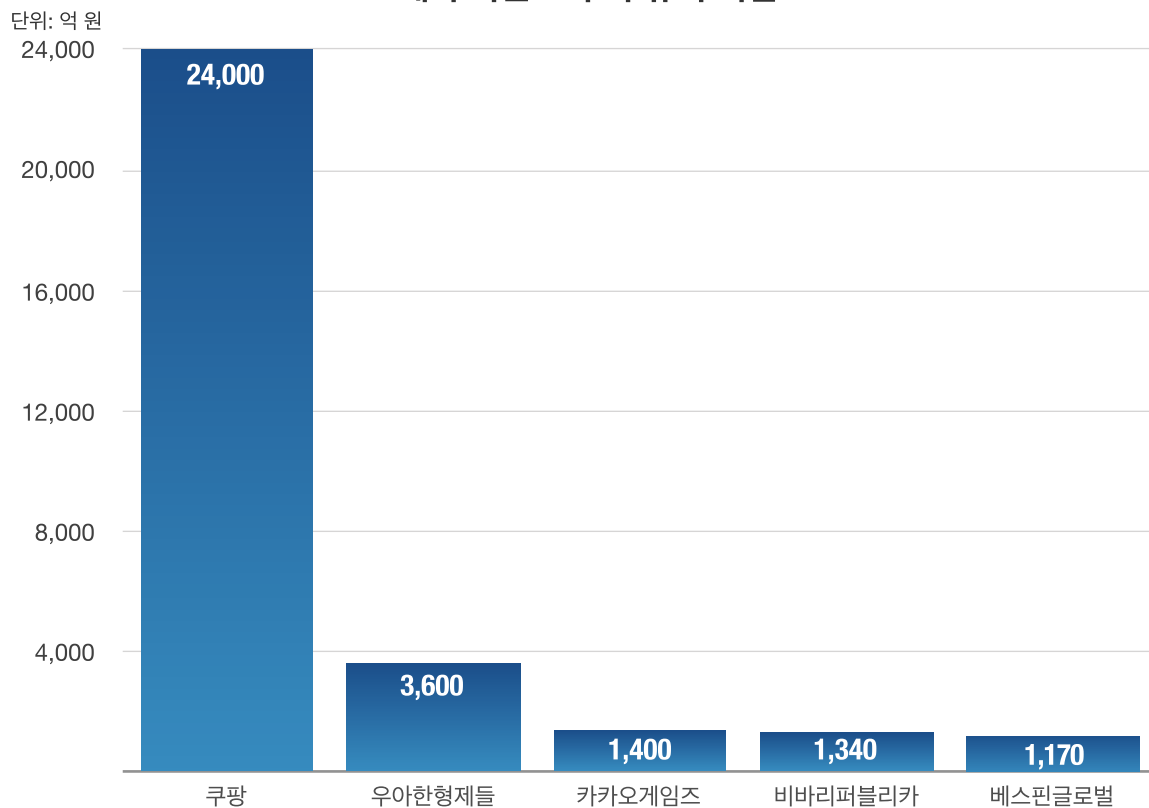
인수 기업 목록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인수금액(단위: 억 원)
스타일난다	로레알	4,000
써머스플랫폼	코리아센터닷컴	1,000
에이비플러스비(29CM)	스타일웨어	300
럭시	카카오모빌리티	252
넥스트매치	메타랩스	97
뷰티소셜	케어랩스	
네오바자르	카카오페이지	
YDM차이나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레저큐	야놀자	
에그커뮤니케이션즈	제이모바일닷아이오	
호갱노노	직방	
크레딧잡	원티드랩	
비앤케이랩	케어랩스	
브이씨엔씨	쏘카	
11번가 태국법인	트릴리어네어	
튜터링	마켓디자인너스	
노리	대교	
오리펀드	더하이원크라우드펀딩	
슬라이드	버즈빌	
한국물자조달	야놀자	
모두의그룹	스마트포스팅	
더블유디자인호텔	야놀자	
볼로	지냄	
여행박사	NHN엔터테인먼트	
JPJ그룹 소셜카지노사업	베이글코드	
디노먼트	리디주식회사	
설레유치원	스터디파이	
레코드팜	더이앤엠	
아웃스탠딩	리디주식회사	
블랙펄시큐리티	에버스핀	
모빌	카카오페이	
실크로드	세븐스타즈	
유니브	샌드박스네트웍	
애드쿠아인터랙티브	퓨처스트림네트웍스	
시그널소프트	비긴메이트	

메가 라운드 투자 유치 및 유니콘 기업

2018년 1,000억 이상 메가(Mega) 라운드 투자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모두 5곳이며 유치 금액은 3조 1,510억 원이다. 이는 2018년 전체 투자 금액의 6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우아한형제들은 3조 원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을 공식화했고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1,34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며 유니콘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메가 라운드 투자 유치 기업은 2019년 IPO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도 꼽히고 있다.

메가 라운드 투자 유치 기업 TO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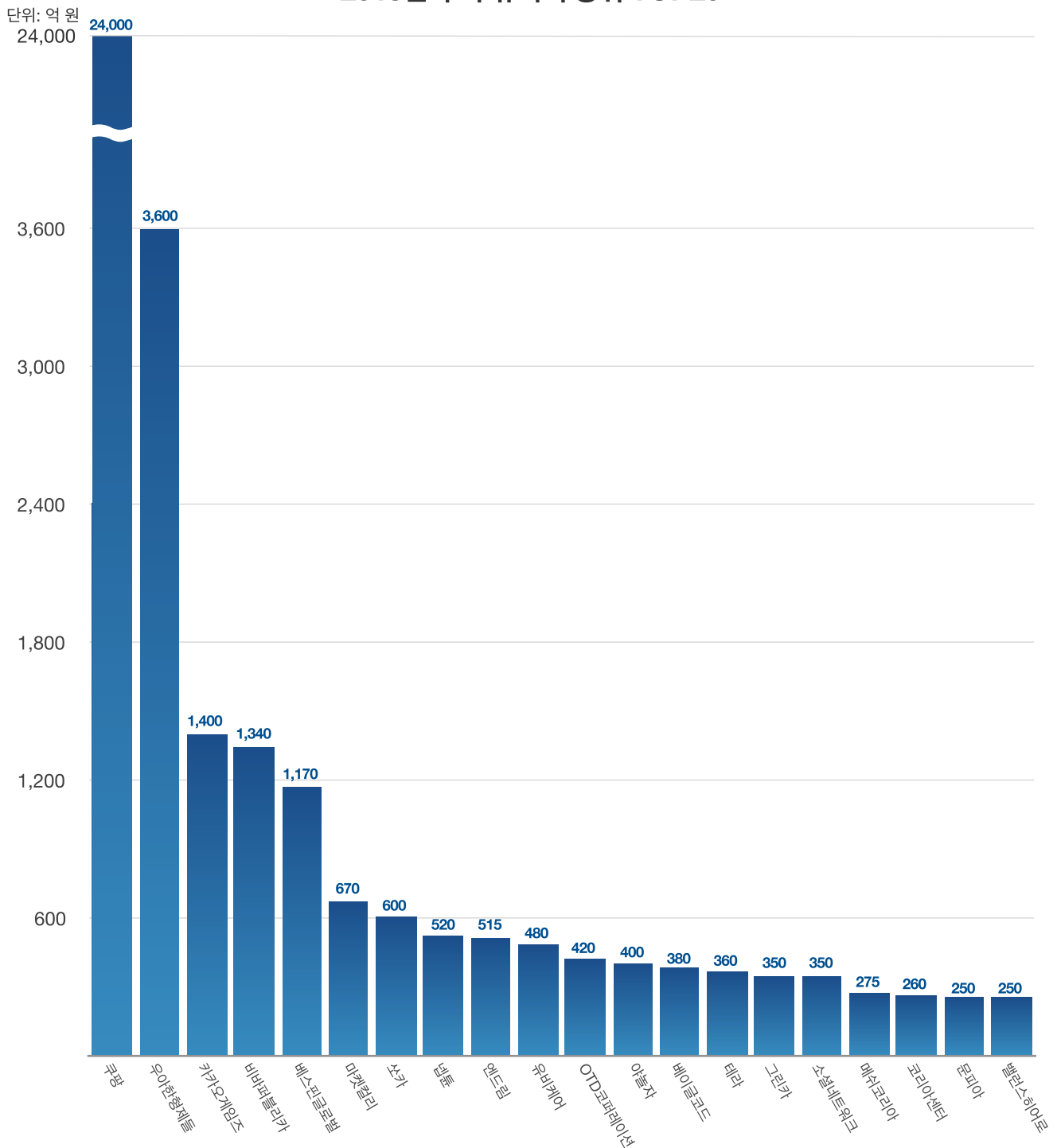


기업	투자사
쿠팡	소프트뱅크
우아한형제들	힐하우스캐피탈, 세콰이어캐피탈, 싱가포르투자청(GIC)
카카오게임즈	텐센트, 넷마블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블루홀, 프리미어 성장전략 엠앤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
비바리퍼블리카	클라이너퍼킨스, 리빗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베세머벤처파트너스, 굿워터캐피탈, KTB네트워크, 노벨,페이팔, 쉐일벤처스
베스핀글로벌	디와이홀딩스, ST텔레미디어

2018년 총 투자 금액 TOP 20

2018년 투자 유치 금액 기업 1위는 쿠팡이다. 한 해 동안 두 차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모두 2조 4,000억 원을 조달했다. 투자 분야 순위는 유통 서비스, 소비자 제품/서비스, 게임 순으로 TOP20 기업 중에서 2018년 복수 투자에 성공한 기업은 넷플릭스와 소셜네트워크(각 3회), 쿠팡, 비바리퍼블리카, 베스핀글로벌(각 2회) 등 모두 5곳이다.

2018년 투자 유치액 상위 TO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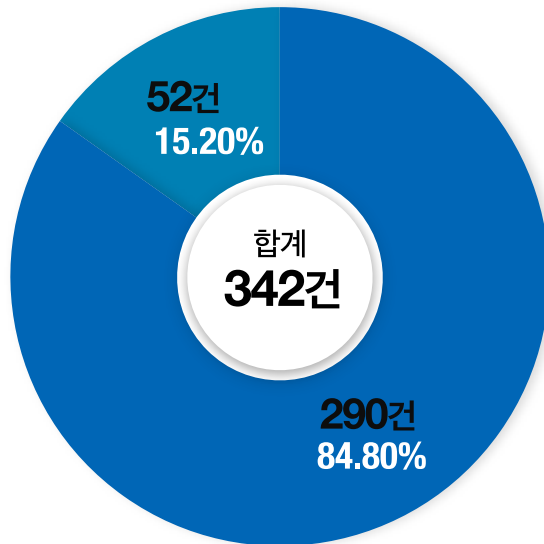


2018년 2회 이상 투자 성공 기업 리스트

번호	기업명	누적 투자금(단위: 억 원)
1	쿠팡	24,000
2	비바퍼블리카	1,340
3	베스핀글로벌	1,170
4	넵튠	520 (3회)
5	소셜네트워크	415 (3회)
6	라엘	223
7	글로벌네트웍스	150
8	스틸에잇 (前콩두컴퍼니)	145
9	오피지지	130
10	지놈앤컴퍼니	120
11	중고나라	100
12	비트나인	100
13	클로버게임즈	100
14	스캐터랩	90
15	진캐스트	84
16	젤라또랩	70
17	버킷플레이스	50
18	엔씽	35
19	아크릴	35
20	로켓펀치	20
21	빅밸류	20
22	산타	10
23	짐싸	10
24	올리브유니온	6
25	핏핏	5 (3회)
26	펫프렌즈	4
27	빛컨	
28	코멘토	
29	아드리엘	
30	애디터	

2018년 스타트업 투자사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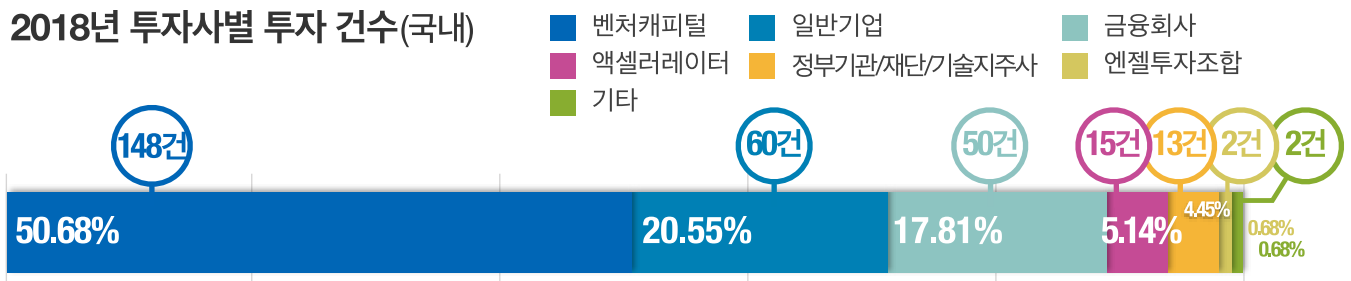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 엔젤 투자자를 뺀 국내외 투자사 342곳이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한 출자기관은 256건을 기록한 벤처캐피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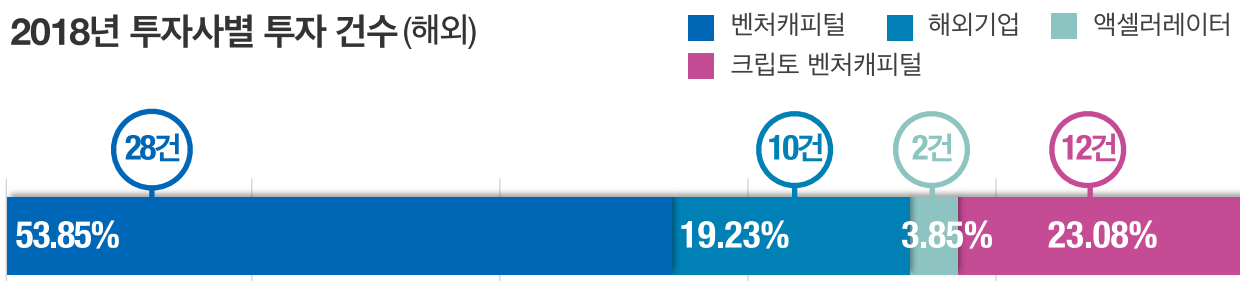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사 비율

- 국내
- 해외

2018년 투자사별 투자 건수 (국내)



2018년 투자사별 투자 건수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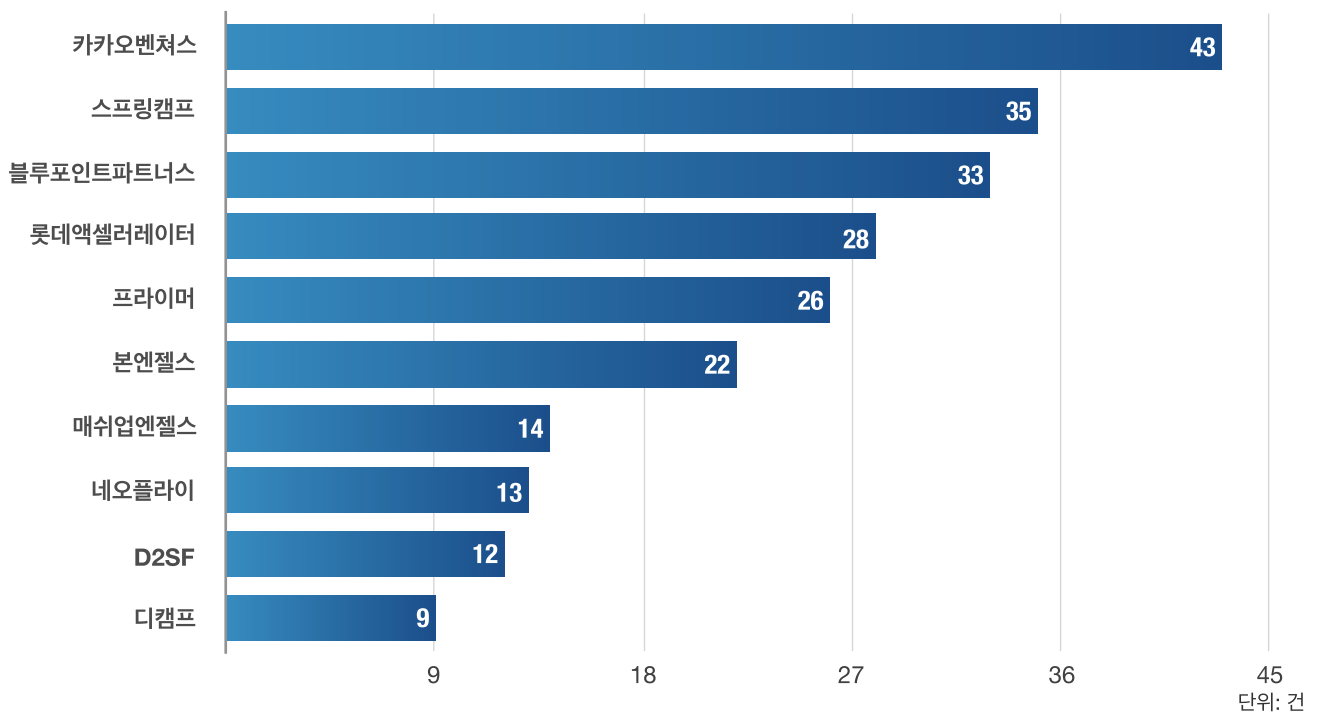


* 위 수치는 뉴스 매체를 통해 투자 소식을 공개한 건을 기반으로 산출했다. 따라서 실제 투자사의 투자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8년 가장 활발했던 투자사 - 엔젤/시드 단계 TOP

초기 스타트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한 벤처캐피털은 카카오벤처스로 43건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스프링캠프가 35곳에 투자를 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엔젤/시드 투자 단계에선 특히 D2SF, 네오플라이, 롯데엑셀러레이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활동이 두드러졌다. 투자 분야로는 소비자 제품/서비스, 유통/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젤/시드 단계 투자사 TOP



※ 기관이 제공한 2018년 투자 건수 (국내외 포함)

2018년 가장 활발했던 투자사 - 시리즈A 이상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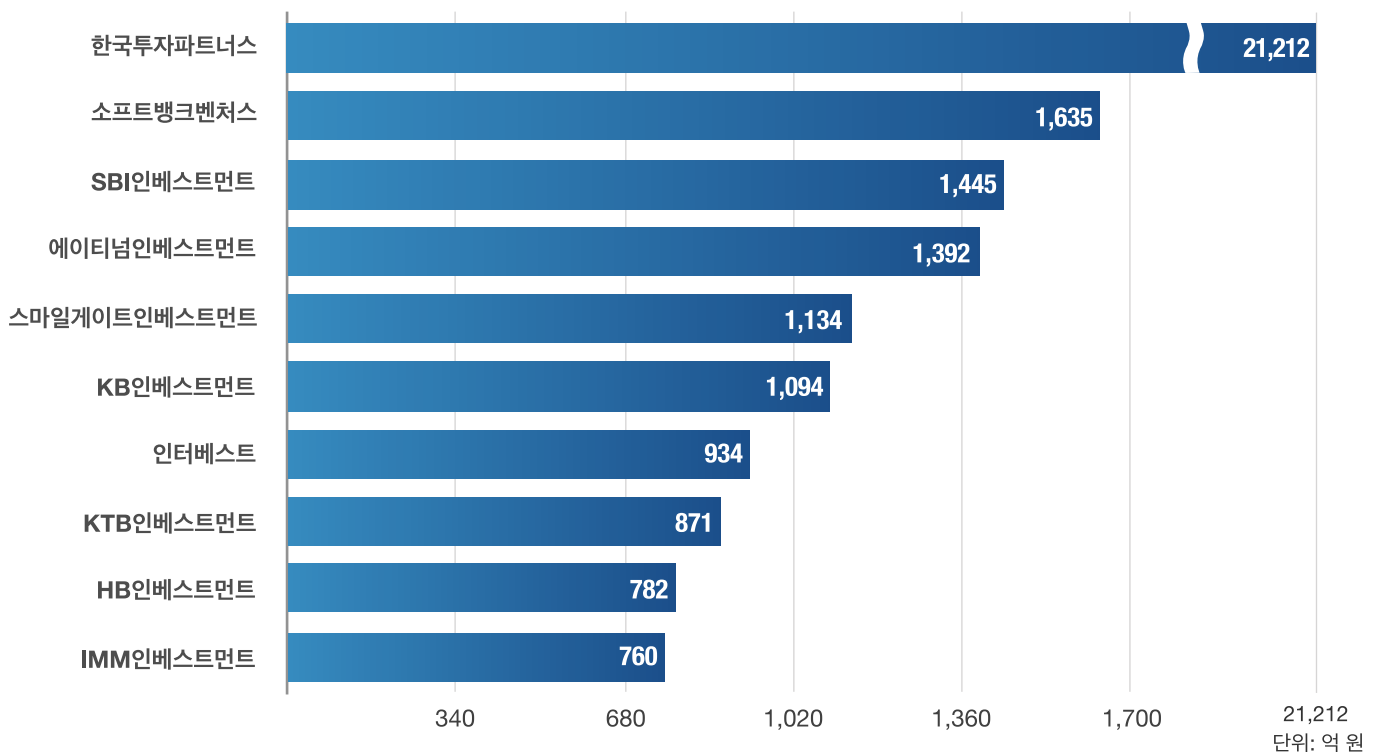
2018년 가장 많은 투자금액과 투자 건수를 기록한 벤처캐피탈은 한국투자파트너스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마켓컬리, 트리플, 위이드, 지놈앤컴퍼니,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등 99개 기업에 약 2,114억 원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총 1,635억 원을 32개 기업에 투자했으며 SBI인베스트먼트는 38개 기업에 1,445억을 투자하며 벤처캐피탈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이외에도 벤처스퀘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아주IB투자,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주요 스타트업 투자사로 이름을 올렸다.

시리즈 A이상 투자에서는 삼성벤처투자,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등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활동 또한 두드러졌다.

※ 국내 벤처투자사에 대한 투자 금액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자료를 참고했다.

시리즈A 단계 투자사 TOP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기준

2018년 가장 활발했던 투자사 - 국내 기타

① **일반기업(국내)** : 일반 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히 투자를 진행한 곳은 네이버로 밸런스하이어로, 트리플, 레티널, 72초, 브런트, 버킷플레이스 등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넷툰, 엔씨소프트, 인포뱅크, GS홈쇼핑,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등도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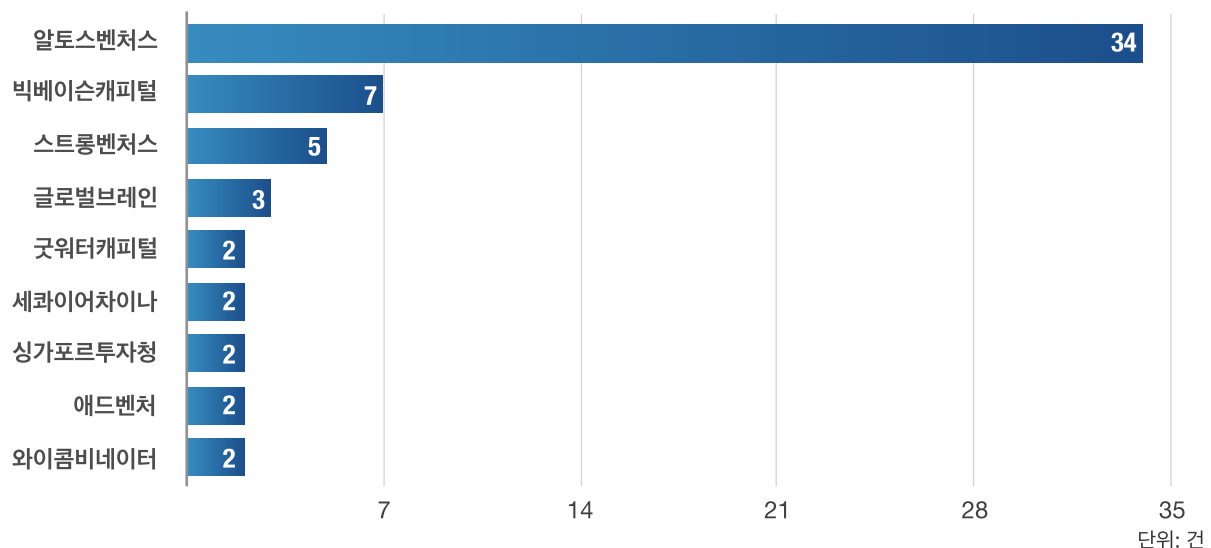
② **금융회사** : 금융기업으로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비투링크, BBB,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비트나인, 클래스팅, 스위트스팟, 토스랩, 코퍼스코리아 등에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DS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키움증권 등도 활발한 투자를 진행했다. 특히 신한과 국민, 우리은행 등은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타트업 투자에 나섰다.

③ **정부기관/재단/대학지주회사** :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를 통해 256개 기업에 투자가 이뤄졌고 서울산업진흥원(SBA)도 25개 초기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34건)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이 스타트업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8년 해외 주요 벤처캐피털·엑셀러레이터

국내 스타트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한 해외 벤처캐피털은 알토스벤처스다. 알토스벤처스는 비바리퍼블리카, 글로벌네트웍, 아이디어스, 링크샵스, 크몽, 비프로일레븐, 렌딧, 스위트스팟, 메이크스타, 엘리스 등에 신규 혹은 후속 투자 34건을 진행했다. 눈길을 끄는 건 알토스벤처스가 투자한 기업 중 쿠팡,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3곳이 1조 이상 가치를 지닌 유니콘으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블록체인 기업은 대부분 해외 크립토펜드와 거래소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해외 주요 벤처캐피털·엑셀러레이터(국내 투자 기준)



※ 벤처스퀘어 2018년 자료 및 기업 제공 기준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10대 뉴스

이석원·벤처스퀘어 기자 lswcap@venturesquare.net

스타트업 생태계는 2018년 어떤 한 해를 보냈을까.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의 투자 환경 개선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과 견주면 벤처캐피털은 100개에서 2018년 10월 기준으로 133개로 늘었고 신규 결성액 기준으로도 2018년에는 2.6조 원을 나타내 2009년 1.4조 원보다 늘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수 역시 123개를 넘어섰다. 물론 이 같은 양적 확대에도 M&A나 IPO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 벤처스퀘어가 10대 뉴스를 뽑았다.

먼저 10위는 **찰떡궁합 소셜미디어+스타트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했고 스타트업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의존도도 덩달아 상승했다.

물론 시장조사업체 DMC미디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소셜미디어 가입 현황의 경우 페이스북은 지난해보다 3.3% 떨어진 85.5%, 인스타그램은 0.9% 떨어진 67.8%가 가입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0.8%, 밴드 0.9% 등 소폭 상승을 기록했을 뿐 대부분 감소나 보합세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와이즈앱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에서 여전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 상위 TOP5에 들어가는 등 소셜미디어 활용은 높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활발하다.

블랭크의 경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고 집꾸미기 역시 거래액 500억 원대를 넘어섰다. 블랭크와 집꾸미기는 모두 콘텐츠 커머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워 매출이나 거래액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9위는 갑질과 미투 등으로 인한 **CEO 리스크**다. 2018년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난 갑질과 미투 같은 현상이 스타트업에도 예외 없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4월 셀레브의 경우 전 직원이 페이스북에 당시 대표의 갑질을 폭로했다. 임상훈 대표는 이 사건으로 대표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7월 전 직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셀레브 뿐 아니라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경우 직원에 대한 엽기적인 갑질 논란 외에도 불법 음란물 유통, 최근에는 검찰 로비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종합 숙박액티비티앱인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전 대표 역시 양 회장과 마찬가지로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올린 혐의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8위는 **K-콘텐츠 스타트업 약진**. 제2의 뽀로로로 불리는 핑크퐁은 글로벌 캐릭터로 급성장했다. 핑크퐁은 유튜브에서 17억 회 이상 재생되는 등 인기를 끈 건 물론 미국 대표 토크쇼인 엘렌쇼나 제임스코든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관련 마케팅도 활발해 핑크퐁 래핑 항공기나 핑크퐁과 상어가족 같은 뮤지컬을 제작해 동남아 투어에 나서는 등 IP 활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MCN 기업인 샌드박스의 경우 1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왓차는 누적 투자 유치액 210억 원을 넘겼다. 문피아 역시 2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왓차는 2주년을 맞은 지난 5월에는 왓차플레이의 경우 누적 시청횟수 1억 회를 넘겼고 누적 앱 다운로드 2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4.7배 높은 재생 횟수를 나타내는 등 호실적을 보인 것이다. 120억 시리즈C 투자 당시 박태훈 대표는 해외 진출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왓차는 실제로 지난 8월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를 겨냥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피아는 웹소설 플랫폼으로 중국에 웹소설 환생작, 던전메이커 등 9개 작품을 수출하는 등 플랫폼과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꾀했다. 250억 원 투자 유치 역시 엔씨소프트 외에 문피아 콘텐츠를 수입한 중국 웹소설 플랫폼 CLL(China Literature Limited)로부터 유치한 것이다.



7위는 **공유 오피스 열풍**이다. 공유 오피스의 성장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위워크와 패스트파이브, 스파크플러스 등이 공격적인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위워크가 지난 9월 종로타워점 오픈과 국내 진출 2주년에 맞춰 밝힌 바에 따르면 2년 만에 1만 5,000여 명 멤버를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했고 전년대비 2.5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워크는 최근 부산광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부산에 서면 1호점과 해운대 센텀, 부산역 등 2~3호점을 잇달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패스트파이브 역시 지난 2015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12개 지점을 연 데 이어 2018년 들어 홍대입구역과 성수, 시청점 등을 잇달아 내면서 강북권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18년 16개 지점 1만 명 이상 멤버를 확보한 커뮤니티로 발전한 것이다.

위워크와 패스트파이브가 공격적 확장에 나서는 가운데 이 같은 성장세에 맞춰 롯데와 LG, 현대카드 등 대기업도 공유오피스 시장에 진출했다. 다만 아직까지 공유오피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네트워킹 문화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코워킹스페이스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공유 오피스 입주사 122명 조사 결과 40.2%가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콘텐츠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위는 **동남아 진출 러시**. 사드 사태 여파가 오래 가면서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남아 시장으로 다변화를 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다. 주요 공략 국가로 눈길을 끄는 곳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이다. 캐리TV는 베트남 채널을 개설했고 인도에 진출한 밸런스히어로는 250억 원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대기업인 GS홈쇼핑 역시 스타트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캐리TV의 경우 높은 경제 성장세 뿐 아니라 11세 미만 어린이 인구가 2,300만 명에 달하는 젊은 국가이기도 한 베트남의 특성에 맞게 키즈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 밸런스히어로 역시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 중 90% 이상이 선불 요금제로 충전과 잔액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에 착안해 자체 개발한 요금 정보를 알려주는 앱 트루밸런스를 선보였다. GS홈쇼핑은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GWG 말레이시아 2018 행사를 열었다. 단순 투자 수익 확보가 아니라 대기업 역량을 스타트업에 적극 이전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로 대기업 역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다.

5위는 **엑셀러레이터 확대**. 서두에 밝혔듯 국내 엑셀러레이터 등록 수는 123개를 넘어섰다. 한화드림플러스는 건물을 통째로 엑셀러레이터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민간 사업자 외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엑셀러레이터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대학기술지주 등 대학 중심 스타트업 보육을 위한 엑셀러레이터도 늘어나고 있다.



4위는 **대형 투자 유치**. 2018년에는 대형 투자 유치가 많았다. 쿠팡은 2조 4,5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단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발표한 것. 쿠팡은 지난 2015년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진 것인데 20억 달러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토스 역시 주목을 받았다. 토스는 지난 2017년 3월페이팔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1,300억 원대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12월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9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밝히면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무려 12억 달러. 한화로 1조 3,000억 원대다.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배 올라간 셈이다.

현재 국내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은 코스피 기준 174개사다. 하지만 2018년 이 같은 대형 투자와 기업 가치 상승으로 크래프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직방,마켓컬리, 하이퍼커넥트, 베스핀글로벌 등 넥스트 유니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3위는 **규제와의 전쟁**이다. 최근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온 건 카풀. 카풀 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나 블록체인을 비롯한 핀테크, 헬스테크 등도 언급되는 분야 중 하나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법령에 의한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완화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5대 입법(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및 행정규제기본법)이 본격화되는 건 2019년이다.

2018년은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에서 봤듯 기존 산업과 신산업간의 간극이 고스런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일부에선 특구 지정이나 특례 지정 계획만 남발하거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는 말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8 조사 결과를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역시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 분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특정 산업보다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나 허용하거나 혹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2위는 **대형 인수 합병**이다. 스타일난다는 지난 4월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에 4,000억 원대에 매각되면서 주목 받았다. 패션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 패션과 화장품 종합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로레알이 지분 중 70%를 인수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종합 액티비티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야놀자 역시 지난 3월 레저액티비티 플랫폼 기업 레저큐를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레저큐는 창업 5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한 곳. 또 지난 7월에는 쏘카가 VCNC를 인수했다. VCNC는 최근 타다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다. 또 스타일쉐어는 지난 7월 에이플러스비를 구주 인수와 증자 방식으로 300억 규모에 GS홈쇼핑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 29CM을 보유하게 됐다. 최근 스타일쉐어는 자사와 29CM을 합친 연간 거래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1위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의 롤러코스터**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은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한편 11월에는 급락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꾸준히 하락했고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1월에는 5,4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740억 달러까지 내려앉는 등 2018년 시장 급등락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ICO 시장 역시 얼어붙어 지난 3분기 ICO 자금 조달 금액은 48%나 줄었다. 5월보다 9월에는 무려 78%나 줄었다.

물론 블록체인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여전하다.마켓앤마켓이 내놓은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3년에는 23억 달러, 연간 성장률 96.4%를 보이며 성장하며 앞으로 5년간 29배에 달하는 시장 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11월 세계무역기구 WT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2030년 3조 달러 근방까지 도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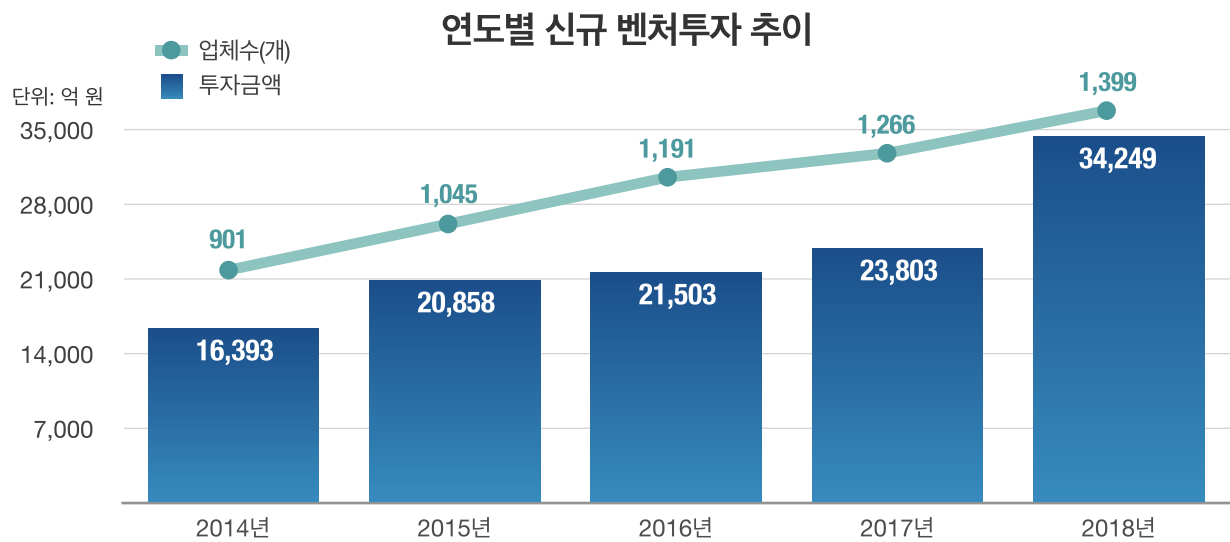
한편 국내에선 시세 급락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급랭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지난 8월에는 신현성 티몬 창업자 겸 의장이 공동 창업해 눈길을 모은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시드 펀딩으로 3,200만 달러, 한화로 360억 원대를 유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ICO를 둘러싼 제한적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제주와 서울 등이 블록체인 특구를 둘러싸고 경쟁적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2018 투자 트렌드·2019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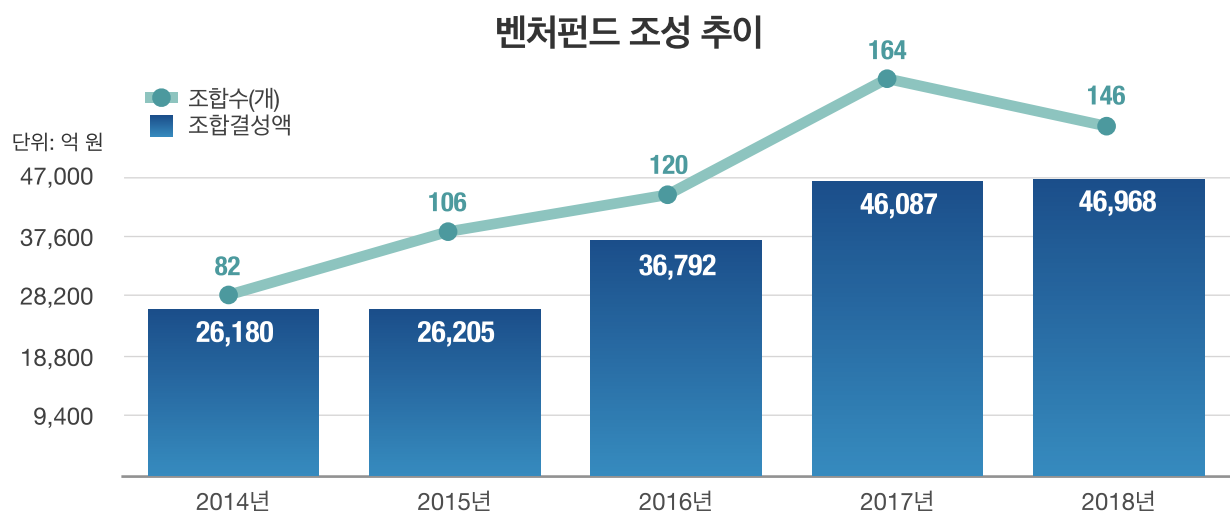
이예화·벤처스퀘어 기자 lee99@venturesquare.net

앞서 살펴봤듯 벤처스퀘어가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4조 9,150억 6,000만원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흘러들어갔다. 투자 건수는 418건. 외형상 숫자상으로 살펴보면 투자 생태계가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도 이 같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건수 역시 2014년부터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지난 한 해 국내 기준 신규투자자과 펀드결성, 회수 총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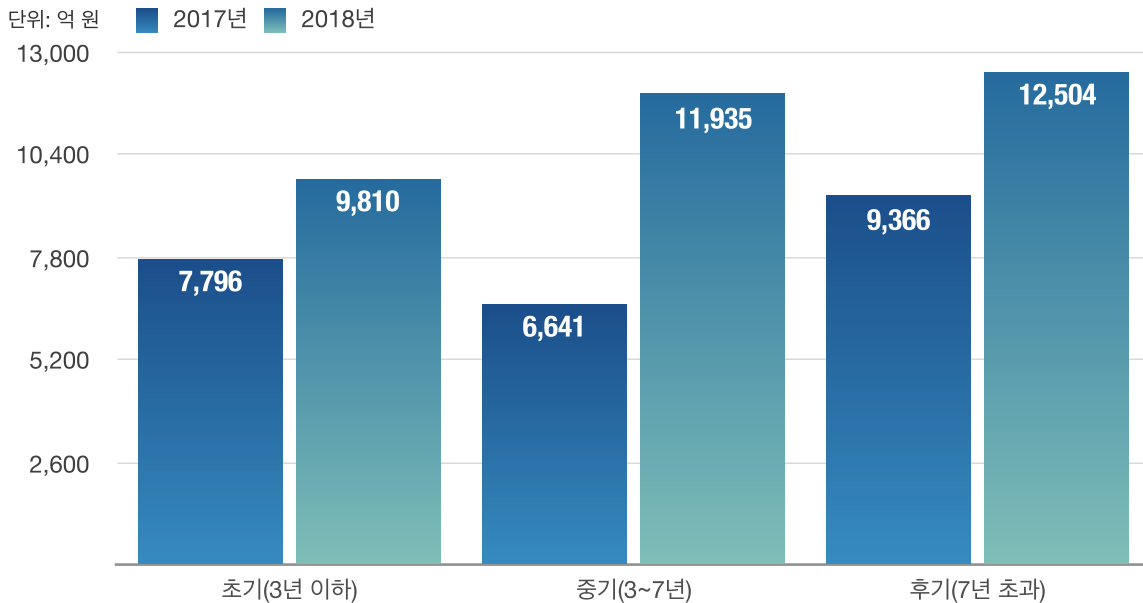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투자 동향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투자 동향

업력별 신규 벤처투자



그렇다면 업계에선 2018년 투자 생태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내일은 지나온 오늘이다. 2019년 투자 생태계를 가늠하기 위해 투자사에 물었다.

상반기 반짝 블록체인·꾸준한 모빌리티·AI

본엔젤스 강석훈 대표는 “2018년 상반기까지 뜨거웠던 블록체인 열풍이 하반기 이후에 급격히 가라앉았고 모빌리티 테마 스타트업이 다수 출현한 해”라고 답했다. 실제 벤처스퀘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블록체인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5월에는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분야로 기록됐다. 하반기에도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과 투자 건에 대한 소식이 이어졌지만 8월 신현성 대표가 설립한 테라에 360억 원 투자금이 몰린 이후 하반기에 굵직한 투자 유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쏘카가 4월 600억 원을 투자 유치한 데 이어 7월 VCNC를 인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선보였다. 동남아 모바일 여행서비스와 국내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주는 이지식스코리아와 전국 렌트카 가격비교 앱 팀오투도 투자를 유치하며 모빌리티 플랫폼의 확장가능성을 가늠케 했다. 아울러 강 대표를 비롯한 다수 벤처투자자는 “AI를 기존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스타트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기억했다. 양상환 D2SF 리더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가 예년에 비해 확실히 높아졌다”며 “특히 2018년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여전히 메가트렌드라는 것을 입증하는 해였다”고 말했다.

스프링캠프의 경우 2018년 서비스와 실제 제품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주목했다. 머신비전 기술을 활용해 공장에서 제품 불량 상태를 걸러내는 스타트업, 비전 기술을 통해 축구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팀, 광고 상품에 최적화된 타깃을 스스로 찾는 스타트업 등이 스프링캠프 포트폴리오에 추가됐다.

실리콘밸리 기반 캐피털로 2018년 국내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알토스벤처스 한킴 대표는 “DTC(Direct To Consumer), 부동산을 활용한 공유플랫폼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해”라고 짚었다. 실제로 벤처스퀘어 조사결과 소비자 제품&서비스 분야가 전체 중 69%를 차지하며 121건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TB네트워크, DSC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투자사도 지난 한 해 소비자 제품, 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을 활용한 공유플랫폼의 경우 패스트파이브와 스파크플러스가 2월과 9월 각각 2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공유플랫폼 성장에 불을 지폈다. 한 킴 대표는 “부동산, 임대 분야에서 이런 흐름은 2019년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분야는 투자사 다수가 선호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DSC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한 투자 중 25~30%는 바이오 영역에 흘러들어갔다. 고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선호도도 이어졌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경우 신약, 의료기기를 비롯해 모바일,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전자부품 등 혁신 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투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전반적으로 신규 투자를 집행할 만한 기업은 되레 줄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엔젤, 시드단계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한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업체를 본 궤도에 올려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와 연결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19년 “투자환경 좋아졌지만 경쟁 치열해질 것”

국내 투자 생태계만 보면 흐름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생태계에 많은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 제2벤처 붐에 불을 지핀다는 기조를 공고히 했다. 모태펀드 1조 원은 투자 마중물로 민간제안, 창업초기, 농수산 벤처, 회수, M&A펀드, 소셜임팩트, 여성, 엔젤모펀드를 비롯한 엔젤펀드, 해외 VC펀드 등 2.3조원 이상의 자펀드 결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킴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변방에 속해 있었던 스타트업 투자에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자금 또한 확대되어 전제적으로 신생 VC펀드가 많아졌다”며 “올해에는 2018년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시완 디캠프 투자 팀장은 “2019년은 신생투자사를 비롯해 기존 투자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 기회가 많아지나 사업 지표에 따라 투자시장의 양분화도 함께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도 투자 생태계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스타트업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다른 사람도 투자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증된 스타트업을 확보하고 가려진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예년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2019년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계획(단위: 억 원)

구분		출자	비율	결성	구분		출자	비율	결성
민간제안*		3,100	30%	9,333	엔젤	기술사업화	180	60%	300
혁신모험	창업초기	2,000	60%	3,333		개인투자조합	200	60%	333
	농수산벤처	400	40%	1,000		민간엔젤모펀드	100	50%	200
회수	M&A	1,200	40%	3,000		엔젤세컨더리	180	60%	300
	LP지분유동화	200	40%	500		소계	660	-	1,133
기타정책목적	지방펀드	600	60%	1,000	해외VC펀드		1,000	40%	2,500
	소셜임팩트	700	70%	1,000	합계		9,980	-	23,000
	여성	120	60%	200					

* 스마트공장 투자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을 60%로 상향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말 1,200억 원 규모의 초기기업 성장펀드를 결성한 DSC인베스트먼트도 전년대비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지만 투자는 되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원 DSC인베스트먼트 이사는 “기술과 서비스가 좋고 독창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은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좋은 스타트업은 비싸질 거고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 수요 또한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자 다수가 경쟁이 한 층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체 투자 환경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다. 한 김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좋은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VC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더 좋은 조건에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본엔젤스 대표 역시 “시중의 벤처펀드 유동성이 매우 증가해 시리즈B 부근에서 VC간 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지만 시드 단계에서 시리즈A 단계 스타트업과 투자자에게는 좋은 환경”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다만 2018년 가을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여파도 있어 인기 있는 딜로 투자금이 물리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그동안 각광받지 못한 영역에도 투자금이 흐를 전망이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초기자본에서 소외됐던 환경, 대체에너지, 농업 등 1차 산업분야에도 투자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기술 스타트업을 관심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벤처투자 사각지대에 공적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연간 신규투자규모 260억 원 중 2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며 “창업기업 70%, 지방소재 기업 50%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상품도 다각화하면서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기술창업, 지방벤처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기보는 2월 100억 원 규모로 엔젤투자연계보증을 신설하고 2,000억 원 벤처투자연계보증, 850억 원 규모로 혁신모험펀드연계보증을 구성했다.

본엔젤스는 롱테일 IT 재개발이 테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몇 년간 아직 디지털화를 거치지 않은 전통·산업 서비스 영역에 신기술을 도입, 고도화를 이끄는 롱테일 IT 재개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바이오를 비롯한 혁신, 고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인기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5G, AI, 블록체인 등 차세대 ICT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핵심기술이 각종 산업분야로 적용되고 파생되면서 새로운 융합·응용 사업모델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도 ICT 서비스, 바이오, ICT 제조 등 혁신, 고성장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를 계속,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venturesquare.net

발행처	(주)엣스퀘어
발행편집인	이석원
기자	주승호, 이예화, 민혜진
디자인	최민
발행일	2019년 4월 1일

